

2024. 3. 7.(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경제정책실 첨단산업과

첨단산업과장	박서영	02-2133-8731
바이오정책팀장	안명희	02-2133-8732
담당자	오권영	02-2133-8733
관련 누리집 (메뉴)	<a href="https://www.seoulbiohub.kr">https://www.seoulbiohub.kr</a>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7쪽

## 서울시, 세계적인 바이오생태계 거점 스위스에서 K-스타트업 임상연구 지원

- 시, 세계적인 바이오생태계 거점 ‘스위스 바젤대’와 협력...현지에서 임상·비임상 연구 지원
- 4.5(금)까지 접수...바이오·의료 혁신 기술, 치료·진단 기술 등 바이오기업 10개사 선정
- 최대 3주간(10월) 바젤에서 전문가 코칭, 유럽 최대 바이오박람회에서 연구기관·기업 연계
-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력 키워, 바이오제약 본고장 ‘스위스’서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 2022년 8월, ‘서울-바젤 스타트업 허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하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타이로스코프’ (대표 : 박재민, 2020년 설립)는 갑상선 질환 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편하게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타이로스코프의 기술은 스위스 바젤 현지 소아병원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 2023년 6월,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니어브레인’ (대표 : 이태린, 2022년 설립)은 수술할 환자의 뇌와 뇌혈관 구조를 3D 모델링으로 재현해 뇌수술을 앞둔 의사가 수술연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스위스 바젤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벨기에 루벤 뇌과학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추진 중이다.

- ‘타이로스코프’와 ‘니어브레인’ 등 서울시가 선발한 K-바이오의료 기업이 스위스 바젤주에서 현지 병원,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고 있다.
  - 스위스 바젤은 노바티스, 로슈 등의 본사와 700여 개 생명과학 기업과 200여 개 연구기관이 위치한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중심이다.
  
- 올해 3년 차인 ‘서울 - 바젤 스타트업 허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 경쟁력을 가진 바이오기업을 선발해, 매년 바젤주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바젤대학교의 이노베이션실(바젤이노베이션)에서 임상·비임상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이다.
  - 2년간 총 15개 기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 중 니어브레인은 바젤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으로 Leading House Asia(취리히연방공과대학 운영)로부터 R&D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타이로스코프는 바젤 현지 소아병원과 공동연구 중이다.
  - 바젤이노베이션실은 스위스 바젤대학교 총장 산하 창업지원 기관으로 창업교육, 자금지원,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서울시는 스위스 바젤대(바젤이노베이션실)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젤 현지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할 바이오·의료기업을 4월 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바이오·의료 혁신기술과 ▲ 치료·진단 기술 총 2개 분야에서 총 10개 기업을 서울시와 바젤대가 공동 선발한다.
  - 참가 대상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레드 바이오) 분야 창립 10년 이내 기업이다.
  - ▲바이오·의료 혁신 기술 분야의 세부 항목으로는 Digital

Health(디지털 헬스), AI(인공지능), Block chain(블록체인), Regenerative medicine & Organoid(재생의약 및 오가노이드), 3D printing(3D 프린팅), Platform technologies(플랫폼 기술)이며,

- ▲치료·진단 기술 분야의 세부 항목으로는 Oncology(종양학), Immunology(면역학), Metabolism(대사질환), Neurology(신경의학), Cardiovascular(심혈관질환)이 있다.

□ 바이오·의료 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제품의 생산, 시장 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글로벌 네트워킹이 필수적이다. 선발된 기업은 약 6주간의 온라인 멘토링, 컨설팅 기간을 갖고, 10월부터 최대 3주간 스위스(바젤대학교)에서 각 기업의 주력 분야(보유기술), 성장단계 등 특성을 고려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연구지원) 바젤대학교 및 협력기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검증 및 임상·비임상 연구 기회가 제공된다.
- (온라인 워크숍 및 코칭·자문) 스위스 소재 바이오텍 및 메드텍 전문 컨설턴트의 온라인 워크숍 및 1:1 맞춤형 코칭 기회(GAP analysis, IR 피칭 자료, 현지 파트너 발굴 리스트 등)를 제공하며, 스위스·유럽 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투자 유치 및 시장 진입) 수립, 스위스·유럽 창업 전략 및 규제 관련 교육을 6주에 걸쳐 온라인 아카데미 형태로 제공한다.
- (팀빌딩·네트워킹) 국제시장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업(팀) 운영 방안 교육과 노바티스, 로슈 등 글로벌 제약기업과 현지 바이오 분야 관계자 미팅 기회 제공한다.

□ 특히, 올해는 참여 기업들이 유럽 최대 바이오 박람회(Bio Europe

Fall 2024, 11.4. ~ 6, 스웨덴 스톡홀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지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국내에서의 교류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유럽 현지 연구기업·기관과 협력 기회를 발굴할 기회다.

- 작년에는 상·하반기 각각 5개 기업씩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2회 진행했다. 올해는 기존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현지 진출 준비를 위한 충분한 온라인 멘토링·컨설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10개 기업을 선발해 각 기업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 서울시-바젤대 공동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www.seoulbiohub.kr](http://www.seoulbiohub.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 프로그램 참가기업은 국내·외 바이오·의료 분야 전문가의 서류 및 영어 발표평가를 거쳐 선발되며,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참가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 한편, 서울시는 2017년부터 흥릉에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존슨앤존슨(J&J)·노바티스 등 글로벌제약사와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해 왔다. 특히,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해외 도시 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올해 4월에는 해외 진출·입 종합 지원공간인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개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셀트리온, 대원제약 등 국내 대·중견기업 및 글로벌기업(기관) 간 활발한 협력으로 K-바이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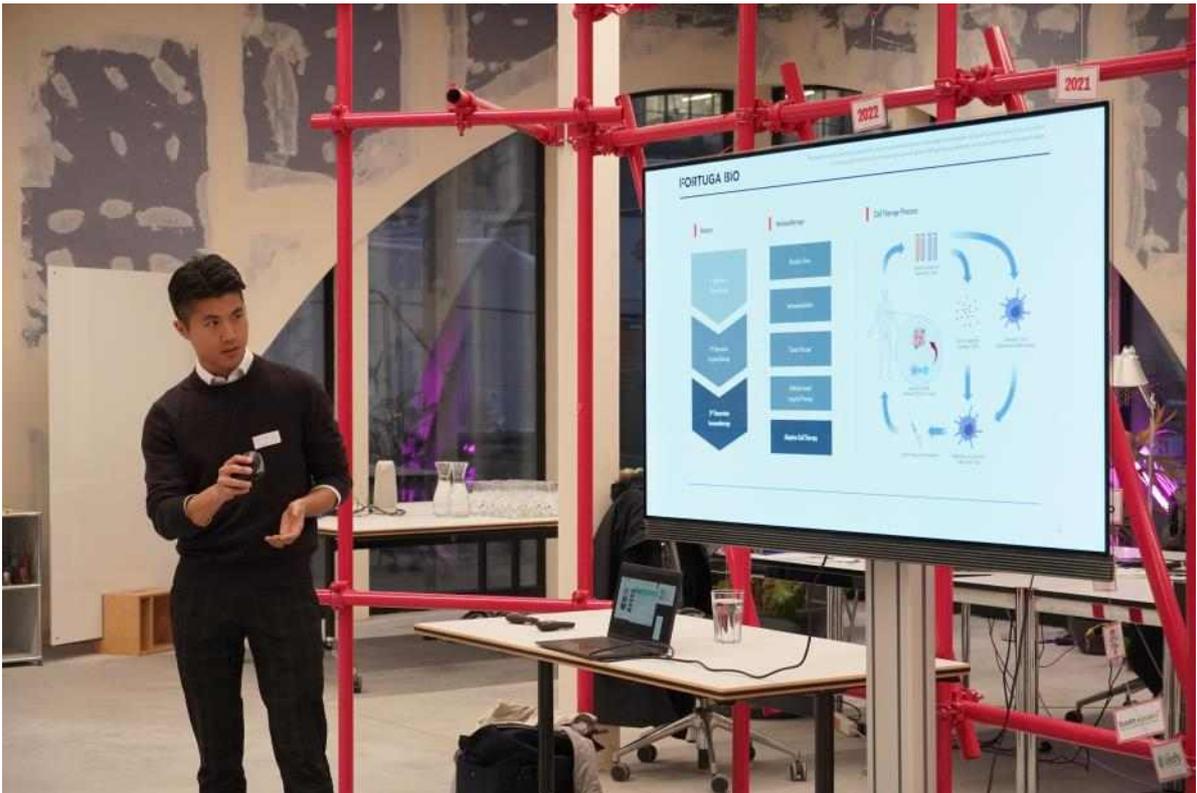
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유럽을 대표하는 바이오 클러스터인 ‘바젤’에서 K-바이오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사업화 노하우를 배우고, 현지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기회를 찾길 바란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검증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한 우리 기업이 독일,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위스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바젤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 참고 사진 각 1부.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참여 사진 1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참여 사진 2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참여 사진 3